

2018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포럼

발표 자료집



2018. 12. 14. (금) ~ 12. 15. (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

2018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포럼 일정표(1일차)

시 간	내 용	장 소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포럼 프로그램 1일차 / 2018. 12. 14. (금)		
12:00-13:00	오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숲’
14:00-14:30	행사 접수 / 등록	민주평화교류원 (옛)전남도청회의실2층
14:30-15:00	행사 소개 및 인사 말씀	
15:00-16:00	기조 발제 발제자 : 포럼 참가 지역 대표 4인(서울, 대전, 대구, 제주)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포럼 1부		
16:00-17:00 세션별 발제	세션 1	민주평화교류원 내 (세션별 발표 장소 상이)
	주 제 : #ME TOO 운동, 지역을 바꾸고 있는가 발제자 : 김민정(미투 대구 시민행동 활동가) 토론자 : 강혜숙(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현진(페미니즘 창작자 모임 페이브 활동가) 이윤채령(대구 풀뿌리 여성연대 활동가) 현유림(스쿨 청소년 연대 인대구 활동가)	
	세션 2	
	주 제 : 대전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발제자 : 심규상(오마이뉴스 기자) 토론자 : 이상재(대전 참여연대 사무국장) 홍경표(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사무국장)	
	세션 3	
	주 제 : 기억의 역사로서 다크투어 사례 발제자 : 백가운(제주 다크투어 공동대표) 토론자 : 강호진(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 곽복임(문화교육 큐레이터)	
세션 4		
	주 제 : 사회혁신과 민주주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발제자 : 최수미(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센터장) 토론자 : 이민철, 박지호(희망제작소 연구원)	
17:00-18: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 관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8:00-20:00	환영 만찬, 숙소 이동 및 휴식	만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숲’ 호텔: ACC디자인호텔

2018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포럼 일정표(2-3일차)

시 간	내 용	장 소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포럼 프로그램 2일차 / 2018. 12. 15. (토)		
08:00-09:00	조식	ACC디자인호텔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포럼 2부		
10:00-12:00	<p style="text-align: center;">● 네트워크 토크쇼</p> <p>주 제 : 인권은 누가 호명하는가? 출 연 : 강용주(前, 광주트라우마 센터장), 송경동(시인), 임인자(연극인) 사 회 :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공 연 : 듀오 꽃향</p>	민주평화교류원 (옛)전남도청회의실2층
12:00-13:00	오찬	민속촌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포럼 3부		
주제 :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의 지역·의제·세대별 연대 방안		
14:00-14:30	사례 발표	민주평화교류원 (옛)전남도청회의실2층
14:30-15:30	<p>주 제 : 제주 4·3사건 70주년 기념사업의 전국화 네트워크 사례 및 과제 발표자 : 박찬식(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p>	
15:30-16:00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의제·세대별 연대 종합 토론</p> <p>사 회 : 최이성(5·18 민중항쟁기념 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p> <p>1) 지역별 의제 공유 - 4개 지역의 의제 공유(대구, 대전, 제주, 서울)</p> <p>2) 분야별 의제 공유 - 여성, 인권, 과거사, 다크투어, 민주혁신 과제</p> <p>3) 세대별 의제 공유 - 청년, 청소년 등 민주인권평화에 대한 고민과 현황 논의</p> <p>4) 과거사 의제 공유 - 대구, 제주, 광주, 순천, 여수 등 과거사의 진실규명과 민주화 운동의 현황 - 남북 평화통일 과제, 동아시아·유라시아 문제 등 차후 당면 과제 논의</p>	
16:00-17: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
17:00-19:30	환송 만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숲'
20:00-21:00	공연 관람 (공연명 : 오! 금남식당)	민들레 소극장 (광주 동구 동명동 200-12)
21:00	숙소 이동 및 휴식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포럼 프로그램 3일차 / 2018. 12. 16. (일)		
08:00-09:00	조식	ACC디자인호텔
09:00-11:00	5·18 유적지 답사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5·18 묘역
11:00-12:00	오찬	추후 공지

Session 1

- 주 제 : #Me Too 운동, 지역을 바꾸고 있는가
- 발제자 : 강민정(미투 대구 시민행동 활동가)

#METOO운동, 지역을 바꾸고 있는가.

- 미투대구시민행동 활동을 중심으로 보는 비서울 지역에서의 미투 운동.

김민정(미투대구시민행동)

들어가며

2018년 1월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증언을 시작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까지 #미투운동은 하나에서 열까지 일상의 모든 공간과 순간에 뿌리 깊은 성차별/성폭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성폭력이 어느 특정한 지역, 특정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 다방면에서 발화된 증언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투운동은 아주 오랜 시간부터 존재해온 여성혐오,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문제를 낱알이 보여주었으며,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에서, 토론장에서, 학교에서, 국회에서 등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축적된 분노와 연대의 목소리는 그동안 위협과 두려움으로 삼켰으나 사라지지 않은 채 존재하던 폭력 경험에 대해 끄집어 낼 수 있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간 합리화되어온 여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이 만들어낸 이 폭력은 오래전부터 말해져왔고, 변화를 요구해왔지만 2018년 미투운동이란 이름으로 폭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성평등한 사회, 이제껏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변화들은 법제도 개선, 사회문화 변화 등 어느 하나가 변화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절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며 다양한 경험과 교차하며 흐르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미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온 폭력의 경험들과 이에 대한 저항과 요구를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외면하고 임시방편으로 봉합할 수는 없습니다. 성평등한 ‘지금’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 우리 모두가 미투운동을 나누는 것이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 글은 미투대구시민행동의 2018년 대구지역에서의 미투운동활동을 중심으로 비서울지역사회에서의 미투운동 국면과 흐름, 어려움에 대해 나누고 경계를 가로지르며 ‘미투 지금’에 응답하는 ‘위드유 지금’을 위한 상상과 변화를 부족하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이 글의 정리에는 그간의 미투대구시민행동의 활동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관을 맞아 진행한 토론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분투한 활동들에서 자료를 얻었음을 알립니다.

미투대구시민행동

350여개의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와 400여명의 개인들이 모인 #미투시민행동은 전국을 망라한 연대체입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도 한국여성단체연합체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서도 2월 1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한 ‘검찰 내 성폭력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미투운동이 활발히 이야기되었습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미투운동 국면과 앞으로 나아갈 운동방향에 대해 나누기 위해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집담회 이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미투운동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대체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내 미투운동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고민은 나아가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의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미투대구시민행동 구성으로 변화합니다. 대구지역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미투운동 연대체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의 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연대체가 아닌 여성/여성주의 운동을 하는 다양한 모습의 단체들이 함께한 것이 그것입니다. 미투운동이 지역사회 확장되기 위해서 연대체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고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미투대구시민행동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함께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페미니즘북클럽 레드스타킹, 페미니즘창작자모임 페이브, 스쿨미투 청소년 연대 in 대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여성/여성주의를 고민하는 팀과 만나며 기존의 여성운동단체들의 주요 의제와 더불어 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공간만이 아닌 더욱 확장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연대체로 함께한 팀들도 더욱 긴밀하게 지역사회의 미투운동과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페이스북 페이지 및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상담창구를 통해 사건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미투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젠더폭력 상담을 사업으로 하는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가 TF팀으로 함께 하며 사건지원을 해나갔습니다.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운동단체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사건 지원이 들어가는 동시에 초중고학교, 대학 등 일터가 아닌 공간과 문화예술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성폭력 경험들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미투대구시민행동으로 만난 다양한 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상황으로는 우선 앞서 말한 미투시민행동이 꾸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미투대구시민행동처럼 전북, 부산, 제주, 경남 등 연대체가 꾸려져 있으며 지역별 외 다양한 영역의 연대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계: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찍는페미, 여성문화예술연합, 페이브 등
- 스쿨미투: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스쿨미투 청소년 연대 in 대구, 스쿨미투 대구대책위원회 등
- 대학: 대학별 충여를 지키기 위한 운동과 참여, 2016년 이후 만들어진 다양한 페미니즘 모임 등 학내 성평등 ‘없음’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들.
- 교회: 믿는페미,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등

미투대구시민행동 활동 보고

월	대구
2월	2월 1일 : 검찰 내 성폭력사건 규탄 기자회견 2월 9일 : 6.13지방선거 후보 성폭력, 성평등 검증은 필수다 정당 공동선언 기자회견
3월	3월 5일 : 미투긴급집담회 “왕들의 세상 뒤집기” 3월 7일 : 미투대구여성단체연합특별위원회 상담창구 개설 3월 15일 : 대구, 미투에 응답하라 토론회 3월 26일 : 미투대구시민행동으로 전환
4월	4월 7일 : 다같이 싸우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미투 위드유 대구행동(1차 집회) 4월 9일 : 6.13지방선거 후보공천에서 미투의 외침에 응답하라 기자회견 4월 11일 : 직장 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촉구 기자회견 4월 13일 : 성매매경험을 자랑한 교사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미투운동과 언론보도 토론회 4월 19일 : 경북대 성폭력 사건 기자회견 및 부총장 면담 4월 20일 : 미투 이후, 우리가 가야할 길 특강 4월 21일 : 대구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2차 4월 27일 : 치유의 전복적 대화 토론회 4월 30일 : 문화계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5월	5월 3일 : 자유한국당은 미투외침에 공천철회로 화답하라 기자회견 5월 4일 : 버라이어티 생존토크쇼 영화 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 5월 12일 :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조사단 부산, 대구 간담회 5월 17일 : 지적장애인 성추행 사건 방조 및 인권침해에 대한 기자회견, 제2회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자회견, 혐오에 맞서는 작은 행동 “춤 추며 절망이랑 싸울거야” 5월 18일 :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시청 간담회 5월 23일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미투TF팀 구성 5월 24일 : 지적장애여성 모녀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하는 기자회견 5월 28일 : 한일 ‘위안부’ 합의 옹호하는 강은희 교육감 후보 사퇴촉구 기자회견 5월 30일 : 미투운동 한복판에서 맞는 6.13지방선거 여성정책발표 및 협약식
6월	6월 4일 : 강은희 교육감 후보 사퇴 1인시위 6월 18일 :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철회 촉구 기자회견 6월 27일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미투TF팀 1차 회의

7월	7월 4일 : 경북대 성폭력 사건 관련 경북대학교 총장 면담 7월 12일 : 페이미투 청년, 여성 최저임금 버스킹 7월 23일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미투TF팀 2차 회의
8월	8월 3일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적 권리 가로막은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기자회견 8월 9일 : 페이미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고발 기자회견 8월 14일 : 제6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공동행동 8월 18일 :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서울상경집회 8월 23일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미투TF팀 4차 회의 8월 27일 : 한동대 부당징계 민변대구지부 변호인단 구성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장 접수 기자회견 8월 30일 : 스쿨미투대책 1차 회의
9월	9월 3일 : 스쿨미투대책위원회 구성, 대책2차회의 9월 3일~10월 31일 : 경북대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1인 시위 9월 5일 : 위력이 아니라고? 안희정 무죄 판결문의 결정적 의문점과 위력에 의한 성폭력 특강 9월 10일 : 경북대학교 미투사건과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학내 구성원 1차 간담회 9월 19일 : 스쿨미투대책 3차 회의
10월	10월 5일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미투TF팀 5차 회의 10월 15일 : 경북대학교 미투사건가 대학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학내 구성원 2차 간담회 10월 18일 : 미투대구시민행동 2차 회의 10월 31일 : 젠더관점으로 본 경북대학교 미투 토론회
11월	11월 1일 : 미투대구시민행동 3차 회의 11월 4일 : 미투대구시민행동 4차 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미투 TF팀 6차 회의 11월 14일 : 대구은행성폭력 가해자 무죄 선고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11월 15일 : 미투대구시민행동 5차 회의 11월 15일 : 직장 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대한 승진인사 승인한 대구시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11월 18일 : 스쿨미투 행진 페미니즘학교를 만들자 집회 11월 21일 : 미투대구시밀애동 6차 회의 11월 26일 : 2018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선포 기자회견, 미투대구시민행동 7차 회의 11월 24~11월 30일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 11월 30일 : 미투대구시민행동 “미투운동, 대구를 직시하다” 토론회, “넘어서는 우리들” 최영미 시인과 함께하는 문화제.

미투운동의 촉발과 의미

#미투운동이란 이름으로 성폭력/성차별 피해경험이 발화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정교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미투운동은 확산되었고, 공공기관 은행권 등 임금노동 현장에서의 여성폭력/성차별을 고발하는 #페이미투, 학교 내 성차별/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운동 등 오늘날 성폭력적 사회문화와 공간의 지금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운동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평등 개헌, 성평등정책추진체계 등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 변화를 위한 요구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경험의 말하기와 성폭력/성차별을 용인해온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온 요구입니다. 미투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전부터 세상을 바꾸기 위한 목소리들이 존재해왔고, 그러했기에 오늘날 미투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미투’라는 이름을 가진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미투운동은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도, 미국의 운동을 가져온 것도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부천서 성고문 사건,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등 한국 사회에서 여성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들 역시 모두 피해경험자들의 증언과 연대로 활발하게 공론화되었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법제도로 익히 알고 있는 호주제 폐지, 여성인권과 관련한 법제도 제정, 고용에서의 평등을 위한 법제도 등 많은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목소리에 응하는 변화가 법제도 및 사회문화 전반으로 일어났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소수자들은 이 사회의 차별과 폭력의 경험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성차별을 만들어낸 가부장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활발하게 이어져온 여성운동 활동과 2010년 이후 인터넷과 더불어 SNS 등의 발전은 다른 형태의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2015년 메갈리아가 대표적 예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17일 일어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그 ‘이전’ 과 ‘이후’ 의 삶이 구분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 전국에 많은 여성/여성주의 팀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페미니스트들과 페미니즘 팀의 등장은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이어가는 주체들을 만들어 왔으며 이는 00계 내 성폭력,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등 수많은 해시태그 운동과 같은 변화한 운동방식을 일상 속에서 이야기하고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2018년 촉발된 미투운동의 시작인 동시에 이름이 다른 미투운동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삶의 시간 속에서 다양한 공간 예를 들면 학교, 직장, 교회, 가정, 일상을 만들어내는 모든 곳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바뀌지 않은 폭력에 대해 발화하고, 문제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하며 만들어가고 있는 경험은 미투운동의 소중한 자원인 동시에 달라진 여성운동의 지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강고한 성차별/성폭력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침묵당하지 않고 기꺼이 말하겠다는 것, 변화한 세상을 함께 그려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어느 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과 함께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미투 고발과 증언이 되고 있으며, 위드유 화답을 위한 변화를 위한 해결책들이 제안되고 있는 것이다. 미투는 사회 전체에 젠더 변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법제도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수많은 미투 고발들이 되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압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법제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도 보아야겠지요. 지금까지의 사회문화 인식전환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되어 왔고, 피해경험자의 피해지원과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닌 가해자 용인의 방식이었는지 우리는 미투운동의 엄청난 분노 이유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미투운동은 무수한 이야기가 되어왔음에도 여성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치부되었던, 그러나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구조적 문제 속에서 조직적으로 존재해왔는지를 모두에게 드러내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전 사회적으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함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대구지역에서의 미투운동

잘 아시겠지만, 미투운동은 유명인에 의한 성폭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투운동은 피해경험자가 용기를 내어 자신을 공개했다는 것이 이전의 다른 모습들과 다르기도 합니다. 대부분 매체를 통한 전국적으로 알려진 미투운동은 피해경험자가 공개되고, 가해자가 유명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방송과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고, 피해경험자를 지지하며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함께 했습니다. 미투운동은 어느 한 영역에서 혹은 어떤 한 부분만 수정하고,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미투 고발에 응답하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의 미투운동 역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해나가야 할 검찰에서도 만연한 성차별/성폭력이라뇨. 우리는 그것을 규탄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검찰청에 모였습니다. 물론 이런 시간은 지난 시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운동단체들이 매일매일 사건 접수를 하고 피해경험자를 지원해왔던 것과 다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면이 변화하였고, 오랜 시간을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낸 피해경험자들은 방송을 통해 많은 시민들 앞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특정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어떤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성적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친밀하고 안전한 공간에서도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방송 등에서 그런 시간을 가진 후 실제로 얼마나 많은 2차 가해들이 피해경험자들에게 가해졌는지 아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 증언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주지 않는 사회에서 그 방법 외엔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이후 대구에서도 미투대구시민행동을 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평등한 정치를

위한 요구 등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 경북대에서 발생했으나 해결은 커녕 피해경험자를 고립시켰던 사건부터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 사건, 장애여성 피해경험 등 다양한 미투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군과 직종에서도 연이어 미투운동은 고발되었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 고발의 많은 공간은 임금노동 현장이었습니다. 직군과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임금노동 현장에서 여성은 질 나쁜 불안한 노동자로서 성적 대상화도 되면서 견뎌야 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구에서도 물론 그러했습니다. 많은 여성운동단체들이 직장 내 성적 괴롭힘에 매일 대응하며 사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회문화 인식전환과 함께 뒷받침될 법제도가 바뀌어야 할 문제에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해결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전국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하는 문제이지만, 아무래도 서울중심적으로 초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 등이 모두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쏟아진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비서울지역에서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이어나간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들과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비서울 지역에서 발화되고 있는 미투운동은 그 발화 지역이 어디인가의 여부를 떠나 전 사회적으로 함께 나뉘지고 말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비서울 지역의 다양한 공간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유기적 연결을 찾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작업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이어 서울에서는 미투운동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많은 집회가 진행되었고, 토론회 등 실제적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나누는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비서울지역에서도 그러합니다. 대구지역만 보아도 지난 3월부터 수많은 기자회견과 토론회, 집회 등을 통해 대구지역에서 미투 운동을 확산시키고 더 많은 이들과 지지와 연대로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자체는 아무런 관심도 문제의식도 없이 진행된다면 결국 지역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회 전반의 문제이고, 대구지역 전반의 문제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대구시의 성평등추진체계는 과연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이전과 이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대구시의 여성정책은 여전히 여성가족분야가 중심이며, 예산 사용 역시 그러합니다. 대구시에서 젠더이슈와 젠더 정책이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사실 미투운동에서 말하는 해결은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대구시로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와 정책 방향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울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구지역에서도 미투운동 국면에서 많은 이야기가 되어왔음에도 지자체의 혁신적인

변화가 모색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 정치가 이 문제를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을 바꾸어나가는 데 필요한 긴밀한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투대구시민행동과 증언되고 고발된 경북대학교 성폭력 사건과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은 그 진행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공동체의 문제로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교는 가해자를 용인하고 문화예술계 가해자는 버젓히 활동을 계속하며 피해경험자를 향한 2차 가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역에서 하반기부터는 초중고 학교 내 성적 폭력과 차별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공고한 성차별/성폭력 문화와 인식은 백래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폭력을 경험하지 않고 서로 존중함을 서로에게 배우며 관계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떤 공간이든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명확히 사건해결을 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법제도가 없는 것이 아님에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가해자를 용인하는 숨방망이 처벌, 가해자를 용인하는 지역/학교 공동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서울지역에서의 운동, 법제도 변화를 기반해야 하는 운동은 오늘도 참 고민되지만, 그럼에도 함께 연대하고 만나는 이들로 다른 내일을 위해 또 다시 힘을 냅니다.

미투운동이 만들어가야 할 변화들

스쿨미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온 미투운동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할까요. 국회는 미투운동 이후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최소 130여 개의 법안을 발했지만, 그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얼마나 되던가요. 몇 개 되지 않는 법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법안은 여전히 계류 상태입니다. 젠더폭력은 다시 여성폭력이란 이름으로 바뀌며 또다시 수많은 이들을 배제하기 쉬운 부족한 법이 되려 합니다. 정부에 실질적인 성평등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가요. 미투운동 국면에서 요구했던 각 부처 내 성평등 전담기구 설치, 예산 확대 등 모두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도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의 법제도 안에서 어떤 인식이 작용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이 점은 안희정 성폭력 1심 무죄 판결문으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으로 판결을 내렸던가요. 이런 법정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는 여전히 피해자스러움을 요구합니다. 또한 피해 경험자에게 심각한 혐오발언과 2차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투운동과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쉬는 전국의 모든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왔듯 미투 운동은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닌, 이미 오래전부터 뿌리 깊은 성차별/성폭력 가해자를 계속해서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는 범정부적인 상시 전담기구와 사회 모든 영역을 전반적으로 연결하며 이어나갈 전방위적인 성평등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각 부처들이 따로 움직이며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매번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핵심을 찾지 못하고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별 부처, 개별 지자체, 지자체 내 개별 부서 등 영역별 성평등한 문화와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반드시 같이 되어야 할 것은 각각을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총괄적인 성평등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미투 국면에서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기구를 만들자, 구성하자, 운영과정에 필요한 것을 나누면서 성평등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 사항인지 모두 여실히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획기적 변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 어느 곳으로든 성평등할 수 있는 사회는 국가의 기본 원리부터 새로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국가는 분명히 변화를 처음부터 만들어나가기 위해 국가는 분명히 변화를 처음부터 만들어나가기 위해 국가는 분명히 변화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한 곳의 필요로만 만들어져서는 온전히 해결될 수 없고, 지속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매일 흐르고 있으며,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하나로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적 정책 요구로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국가성평등위원회법과 국가성평등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책임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그 요구인데요. 언제까지 ‘나중에’ 로 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해나가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미투운동은 어느 누군가를 향한 성폭력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폭력 문제는 성폭력 그 자체로도 큰 문제이지만, 미투운동에서 고발되어온 증언들은 한국의 전반적인 젠더 불평등이 여러 가지 상황을 교차하며 많은 문제들을 잇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중심이 되어온 국가 정책 초점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한국이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정상, 남성생계부양자모델, 정상가족 등으로는 이미 포괄할 수 없고, 그 속에 포함되지 못하고 배제되지만 실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미투운동이 지역을 바꾸고 있는가? 어려운 질문이 되는 것은 그렇기도 하고 아직 아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변

화되지 않는 문화인식과 피해경험자를 대하는 편견, 달라져야 할 법제도와 이미 있는 법제도 속에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가해자를 용인하는 인식 등에서는 미투운동이 1년 만에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투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지금껏 지속되어온 많은 운동 속에서 피해경험자를 피해경험자만 아닌 증언자로서 우리 사회에 드러나게 했고, 또한 이것은 보통의 수많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법, 지금 당장 어떤 부처의 상황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진 않았을 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않고 있고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은 여전히 싸우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목소리들이 필요합니다. 변함없이 각자의 공간에서 싸우고 목소리를 내야하며, 이것을 큰 목소리로 엮어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연대하고, 함께 거리에서 또 다른 공간에서 다시 모여 성평등한 한국사회를 위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수십 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성평등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지금처럼 외면당하는 것을 그냥 둘 순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이것이 실제적 나의 삶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미투운동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투운동 이후를 그리고 있고, 그것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공간에서 분투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부족하지만 글을 마무리합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학 내 성평등에 대한 백래쉬, 초중고학교 내 고발 스쿨미투 등 대구지역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이야기되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질 분과 토론에서 함께 들어주시고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ssion 2

- 주 제 : 대전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 발제자 : 심규상(오마이뉴스 기자)

대전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심규상



-대전의 역사

-114년 /
1904년 대전 경부선 개통으로 도시형성

-대전=전쟁

백제시대=신라와의 국경선(전쟁터)
(백제 동성왕: 제주 백제 병합, 185개 가운데 대전
에만 40개, 대전+공주=80개)
(백제 성왕: 식장산 인근에서 전사)
(계백장군과 식장산/탄현)



-대전의 역사(2)

-백제부흥군의 본거지
-고려: 망이,망소이 전투

-(현대사)

1)일본 대전에서 미군과 마지막 결전
조선군사령부 대전이전, 대전중학교 사령부 설치
(‘일본 본토’ 방어하기 위해)

2) 한국전쟁과 대전전투

3) 3군 본부(계룡대)-군사 도시 계룡시- 군 문화축제



-대전전투

-1950년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대전에서 벌어진 전투.

금강-갑천을 사이에 두고 미 8군 산하 24사단과
인민군 1군 산하 3.4사단이 정면충돌, 6일 만에 인민군
이 대전을 점령한 격전.

(미군 약 30%(약 1000 여명 사망)의 병력손실과 1개 사
단 분의 장비 상실, 인민군은 15대의 전차와 15대의 자
주포, 그리고 122mm 곡사포 6문 손실)

왜곡된 대전전투



-1932년 9월에 준공, 2012년 12월 충청도청이 이전될 때까지 역대 충청도지사들이 사용했던 관사다. 안희정 충남지사 마지막 사용.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6월 27일부터 7월 1일 까지 생활.

-27일 밤 이 곳에서 "서울 사수"라는 기만적인 연설을 녹음, 서울중앙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송



-등록문화재 18호. 1932년 5월 준공
청사 내외에 조선총독부의 문양 등이 50여 개 남아있음.
청사의 문양은 일본 천황이나 특정 가문(家紋)을 상징하
는 문양일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임.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충남도청이 임시중앙청으로
사용. 7월 1일에는 수원에서 내려온 공군본부 작전지휘소
가 충남도청에서 자리잡고 공습을 지휘. 16일 정부가 대구
로 천도한 뒤에도 한동안 영국군 진지로 활용. 대전 상주
인구는 12만 명 정도였는데 피난민으로 한때 100만 명으
로 늘어나기도 함.

. 1차 약살(1950년 6월 28일경 ~ 6월 30일경)



[참고사진: 한국전쟁 전 1950년 4월 서울근교에서 좌익사범 총살장면]

“헌병대는 이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 나무기둥에 손을 묶었다. 헌병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헌병대가 총살을 하고, 헌병 지휘자가 확인사살을 했다.

뒤이어 소방대원이 손을 풀고 시신을 미리 준비한 장작더미에 던졌고, 시신이 50~60구씩 모이면 화장을
했다. 그리고 가져온 나무기둥을 다 소진하자 미루나무에 묶어서 사형을 했다.”

나. 2차 학살(1950년 7월 3일경 ~ 7월 5일경)

1) 학살명령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7월 1일)

‘미명을 기해 대규모 공습이 있으니 공산당 우두머리를, 좌익의 극렬분자를 처단하라’

- 법무부장관

‘군이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다. 만약에 재소자를 인도한 게 후일 문제가 생기거든, 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일 거다. 그러면 사전에 장관 만났다는 소리는 말아 달라’



[참고사진: 학살지로 이송되는 공주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명원]

- 대전형무소 특별경비대원

‘뒤로 다가 두 사람을, 한 사람 왼손하고 옆 사람 오른손 하고 어긋매끼로 묶었어요. 묶어서 감방에서부터 현관까지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재소자들을, 헌병이 징발한 트럭에 가득 실었어요. 헌병들이 총부리를 겨누면서 재소자를 트럭에 콕콕 채웠어요. 재소자들은 그때까지 트럭에 서있는 채로 있었어요.’



[참고사진: 학살지로 이송되는 공주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그리고 헌병들은 재소자들을 총 개머리판으로 때리면서 앉으라고 했어요.
못 앉을 것 같죠. 재소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앉아서 아주 납작해져요.

형무관들은 신분장을 가지고 운전석 옆에 앉고,
헌병들이 트럭 네 귀퉁이에 보초를 쏘어요.
나중에는 형무관들이 트럭 네 귀퉁이에 서서 호송임무를 맡았어요.'



[현장사진: '한국에서의 정치범 처형',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산내 골령골에는 경찰들이 외곽을 둘러서서 경비하고 있었고,
청년방위대와 산내주인이 판 구덩이가 여러 개 준비되어 있었다.

구덩이의 깊이는 1m 50cm 정도, 넓이는 3m 정도, 길이는 30m~50m 정도 되었다.



대전형무소 특별경비대가 산내 현장 입구에 트럭을 세워 놓으면 청년방위대들이 재소자들을 구덩이 앞까지 끌고 갔다. 청년방위대들은 재소자들을 구덩이 쪽으로 무릎을 꿇렸다.



● 대전형무소 특별경비대원

‘살해하는 방법은, 동원된 청년방위대들이 재소자를 하나씩 끌어다가 구덩이 독에 머리를 드러나게 하고. 경찰 등 사수들이 10명씩 옆을 지었다가, 헌병대와 경찰관 지휘관이 ‘준비’ 하면, 사수들이 하나씩 등을 발로 밟고서, 머리 뒤통수에다가 사격을 했다.’

‘재소자들을 앉혀서 구덩이 쪽을 바라보게 하고, 재소자 뒤통수에 대고 쏘는 거야. 뒤에서 쏘면, 피와 골머연 것이 튀어서 바지가 엉망진장이 돼. 나중에는 군복을 새로 갈아입히고, 바짝 들이대라고 해. 총구를 머리에 바짝 들이대면 안 튀어. 그렇게 한 번 쏘고 나서, 꾸무럭거리고 있으면 권총으로 또 쏘어’



● 대전형무소 특별경비대원

‘헌병대 중위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단 1차례 확인사살을 했는데, 살인강도로 10년형을 받았지만 잔형이 1년 남은, 직원식당에서 일했던 일반사범이 ‘나 안 죽었어요. 제발 나 좀 한방 싸주세요’ 라고 애걸했다’ .



● 대전형무소 특별경비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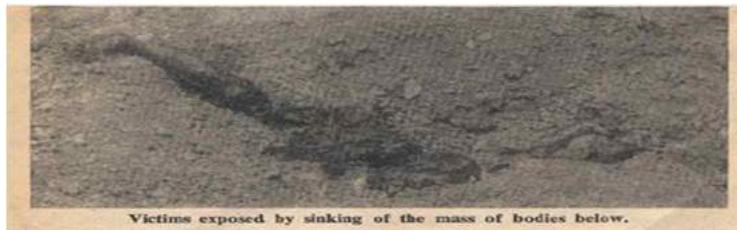
초기에는 학살된 시신들을 자각자각 구덩이에 쌓았으나 점차 시신들이 많아지자 나중에는 거꾸로 쑤셔 넣다가 마지막에는 헌병대 중위의 명령에 따라 큰 돌로 시신들을 눌러버렸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신을 넣을 구덩이를 계속 파고 있었다.

‘얼마 안 돼서 구덩이에 시신들이 거꾸로 쑤셔 박혀서 다리가 위로 서고, 별거 다 있었어요. 헌병 지휘관이 청년방위대에게 산 위에서 돌을 굴러 와서 시신들을 눌러 버리게 했어요.’

다. 3사 악살(1950년 7월 6일경 ~ 7월 17일 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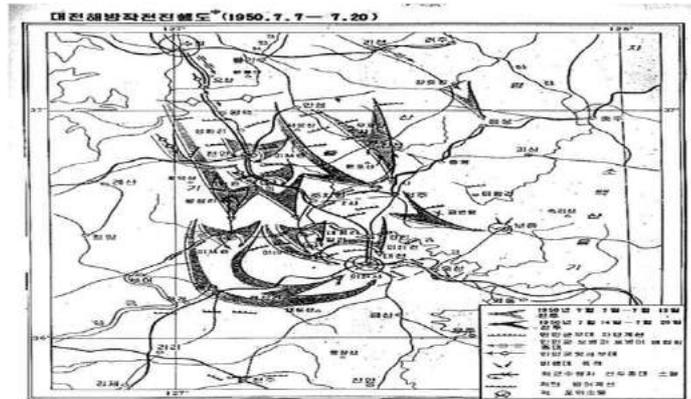
- 육군형무소 병력이 대전형무소에 임시 주둔하던 시기
- 『한국헌병사』
‘육군형무소(소장 백원교 소령)는 7월 7일 대전형무소에 육군형무소 및 포로수용소를 설치 전원 야전임무로부터 이동하여 업무를 개시한다. (중략) 이후 중범자, 보련 관련 적색분자들을 처벌하고 (중략) 7월 17일에 이르러 드디어 대전출발 대구포로수용소로 집결 즉시 업무를 개시하였다.’
- 희생자
 - 한국전쟁 발발 후 서울을 비롯한 경인지구 형무소에 서 풀려났다 다시 검거된 재소자
 - 청주형무소에서 이감된 재소자,
 -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충남지역의 보도연맹원

마. 영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시신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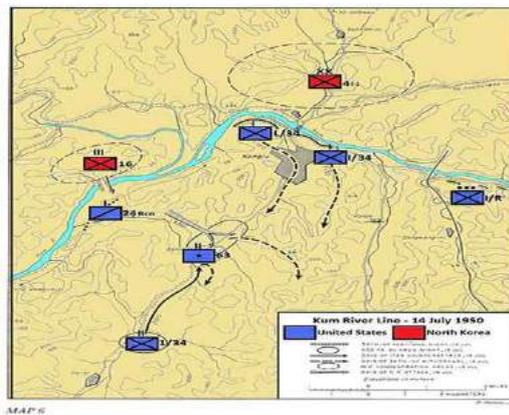


[현장사진: '앨런 워닝턴(Alan Winnington)의 「I Saw the Truth in Korea」(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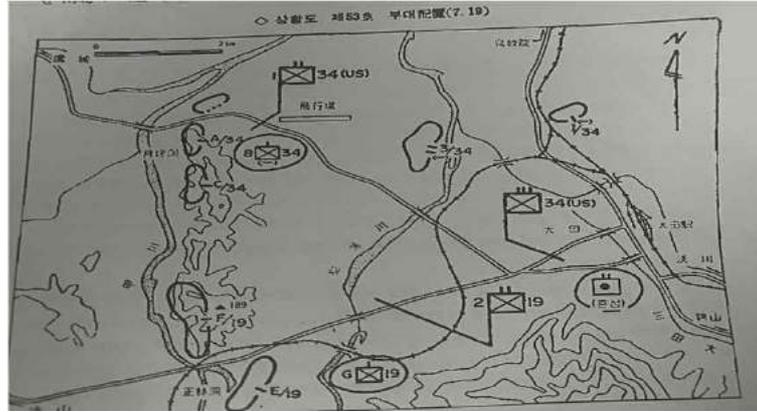
- 유족 정광임
‘시신 수습도 못했다. 인민군들이 내려왔을 때(1950년 7월) 죽은 사람들 시신을 찾아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갱이하고 흩이불을 가지고 산내를 갔다. 산내에 갔더니 구덩이를 파고는 사람들을 죽여서 묻어 놓았는데 뼈가 땅 위로 드러나 있었다. 그 때 그 곳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고,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런데 뼈를 당기면 뼈만 속 뽀뽀 나왔기 때문에 시신 수습할 엄두조차 못 냈다. 마침 비가 쏟아져서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갔다.’



- 인민군/ 금강 도하, 대전 점령 1차 목표
- 제1군단장 김웅/주공방향을 경부 주도로에 두어 제3사단장 이영호로 하여금 정면을 공격하여 금강을 도하
- 제4사단장 이건무/ 공주 방면으로 남진하여 논산을 거쳐 대전 남쪽으로 우회



- 미군 / 금강 저지
- 14일 34사단 공주전선 대패, 16일 19연대 대평리 진지 와해(17일 영동으로 후퇴)
- 제 21연대 동북쪽과 마달령 확보, 제 34연대(대전비행장에 연대 지휘소 설치), 사단의 13,52,63 포병대대 혼합부대 편성



-제 21연대 동북쪽과 마달령 확보, 제 34연대(대전비행장에 연대 지휘소 설치), 사단의 13,52,63 포병대대 혼합부대 편성

• 7월 18일

-미군/대전 비행장에 도착한 미 8군사령관 일턴. 워커 중장은 미 34연대 본부에서 미 24사단장 딘 소장을 만나 제1기병사단과 25사단이 대전 동쪽에 배치될 때까지 대전을 이틀만 더 사수하여 줄 것을 요구. 이에 딘 소장은 21연대를 대전. 옥천가도에, 대평리에서 참패한 19연대를 금산. 논산가도에 배치.

-인민군/제4사단 18연대는 논산계선에서 우회하여 직선거리 100여 리에 이르는 대전의 동남부로 진출.
보병부대는 보문산을 거쳐 대전. 금산가도 차단,대전. 옥천가도 차단하였다. 대전으로부터 6km 떨어진 감천 동쪽으로 진출

• 7월 19일

- -인민군/인민군 4사단 5연대 보병과 105탱크여단) 유상 점령
- 대전 북쪽으로부터 진공하여 온 인민군 3사단은 대전 5km지점에 접근.
- -인민군 공군부대는 대전. 감천 사이 열차를 폭격, 대전. 옥천 사이의 다리 폭파
- -인민군 탱크 두 대,대전역으로 진출하여 기관차와 창고 파괴

- 7월 20일

- 인민군/ 새벽 5시 인민군 중공격 단행

대전 북쪽: 인민군 3사단과 105탱크여단 미군진지 파괴

모터사이클 부대 기관총을 발사하면서 시내 진입대전 북쪽과 서북쪽, 서쪽과 서남쪽으로부터 공격 개시

탱크부대는 대전시 안으로 돌진,미군 소탕

인민군 4사단은 대전. 금산 사이와 대전. 옥천 사이의 도로를 차단,후퇴하는 미군 섬멸

낮 12시, 대전 완전 점령

- 미군/ 금강도하전투에서 병력과 장비의 부족, 또는 사기와 군기의 저하와 문란만으로 참패, 대민 심리전 참패(대전 형무소 정치사상범 학살과 노근리 민간인 학살,부녀자검탈 만행...한국민 민심 이반)

딘 소장: 3. 5인치 바주카포 사수를 대동하고 탱크사냥에 나선 일, “이런 일은 유능한 하사관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46일 동안 산야를 헤매다 한국인의 신고로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힘. 딘이 의식을 잃고 부상당한 곳이 민간인 7000 여 명이 학살당한 낭월동임

- 대전방어전 피해비교

- 인민군/ 76미리 포 15문, 120미리 박격포 6문, 전자 15대 파괴

- 미군: 제24사단장 딘 생포, 약 30%의 병력손실과 1개 사단 분의 장비 상실

- / 3933명 중 1150명 손실 (874명 실중, 48명 전사, 228명 부상)

- **미군**

- “기관총을 비롯한 무반동포. 박격포. 트럭을 유기한 채 참호를 빠져나갔다. 철모를 내버리고 군화를 벗어버리고 상의를 잃어버린 채 진흙탕길로 패주하였다. 몇 자루의 소총과 한 사람 앞에 두 세 개씩 되는 탄창을 제외하면 아무도 화기라고는 지니고 있지 않았다.
- 혹자는 죽미령 전투에서 패하여 서해안과 동해안까지 도주한 자도 있었다. 이러한 참패와 도주는 평택. 천안. 조치원에서도 반복되었다. 대평리 전투에서는 탱크와 100대의 트럭을 유기하였다. ...”

- **미군장교**

- “방어군을 정면으로 공격해서 그 자유를 묶고, 후퇴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한편, 우회 또는 침투방식에 의해 방어군의 후방으로 진출해서 그 퇴로를 차단하는 그런 전술”
- **딘 소장:** “숲이 너무 가까워 숲 속을 볼 수 없었다.”
- **미국학자:** “조선의 가장 훌륭한 전투 가운데 하나”

• 대전방어전 피해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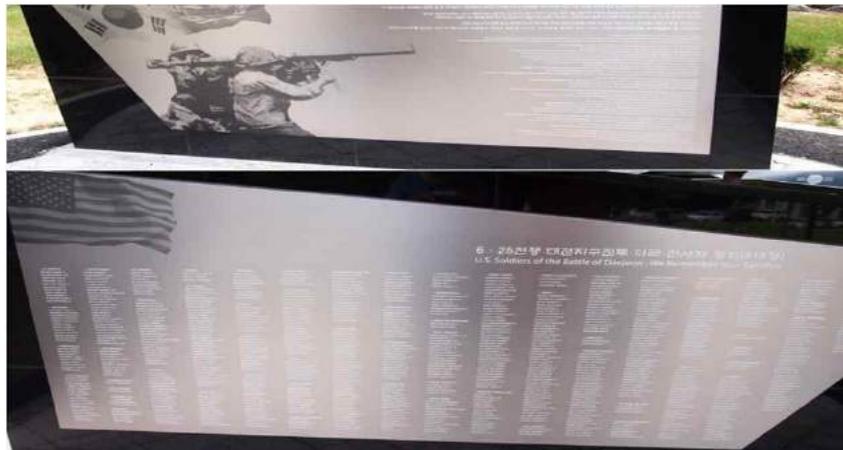
- 인민군/ 76미리 포 15문, 120미리 박격포 6문, 전자 15대 파괴
- 미군: 제24사단장 딘 생포, 약 30%의 병력손실과 1개 사단 분의 장비 상실
- / 3933명 중 1150명 손실 (874명 실종, 48명 전사, 228명 부상)/
- “남북전쟁이래 고급장교의 가장 많은 손실 기록” /연대장 2명,대대장 6명 “...전쟁기간을 통틀어 유례없는 숫자”



보라매공원



보라매공원



보라매공원



대전지구 전승비로 세워진 유엔탑(Monument of UN): 제1공화국 시절인 1959년 옛 문화방송국 앞 대로변에 세웠다가 1975년 10월 보문산 골짜기인 대사동 산3 번지로 이전 . 단소장 영웅적 투쟁 서술



1981년 12월 교통부와 충청남도의 주관 아래 국방부의 후원으로 대전시가 건립.
“.. 이 언덕에 우리는 미 제24사단의 전적과 혈맹의 우의를 길이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비를 세운다”



1981년 12월 교통부와 충청남도의 주관 아래 국방부의 후원으로 대전시가 건립.
“.. 이 언덕에 우리는 미 제24사단의 전적과 혈맹의 우의를 길이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비를 세운다”





망향탑/이북 5도 민회 1990년 준공



보훈공원/6.25 참전용사 위패봉안



대전형무소 애국지사 영령추모비



대전형무소 애국지사 영령추모비



대전산내 골령골



동대전 광장



판암동 김재환 기관사 순국비



세천 1터널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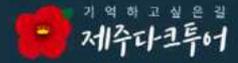
- **-1959년:** 대전지구전승비-UN탑(대전MBC부근), 미 24사단 영웅적 투쟁...1975년 대전 보문산으로 이전
- **-1971년:** 육군이등병사 윤옥춘 공적비(보문산), 육탄 10용사 추모비
- **-1981년:** 대전지구 전적비(교통부,충남도) 24사단 투쟁기리고 혈맹우의 전하고자 (교통부와 충청남도의 주관 아래 국방부의 후원으로 대전시가 건립)
- **-1985년:** 망향탑(사정공원, 이북5도민회장단) 충남지역 60만 실향민 망향의 한
- **-1986년:** 반공애국지사추모비(대전교도소 옛 터, 한국방송공사 건립)
- **-1986년:** 반공청년운동순국기념탑(해방 후 1403명 희생자, 한국청년운동협의회 충남지구)
- (안흥모 충남지사 강창희국회의장, 심대평 대전시장)
- **-2007년:** 영렬탑(전몰군경위패봉안소,용두지구재정비추진사업으로 사정동으로 이전)
- **-2016년:** 대전지구전투호국영웅비(한미공조, 대전전투전사자 818명 명단 각인)

평화를 위한 대전지역의 역할

- 1) 기억의 방식과 내용 바뀌
- =전쟁 존적을 국가주의, 애국주의, 호국주의,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 전시 기획물
- -->전쟁영웅, 전적지·전루지 중심의 전쟁을 보여주는 시각에서 인권, 민간인 피해 중심으로 탈바꿈해야
- 2) 사실 바로잡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 3) 기념탑-상징물 위주에서 교육관, 체험 활동으로
- 4) 전쟁과 재난시기 민간인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선구적으로 연구하고 타산지석 삼아야
- 5) 인권의 도시로 걸맞는 각계각층 역할 필요 /역사 기억과 인권교육
- *(국가의 사과/경합, 군, 검찰, 정보기관 책임자 포함,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조치, 이력행위 등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 개정 또는 폐지, 피해 회복, 피해 회복을 위한 배·보상법 제정, -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생존자 희생자 유족의 피해실태 파악과 의료지원, 구호-유해발굴과 영구 안치시설 마련, 미신청 사건과 생존 피해자의 구술 채록과 관련자 진술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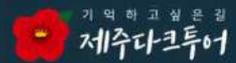
Session 3

- 주 제 : 기억의 역사로서 다크투어 사례
- 발제자 : 백가윤(제주 다크투어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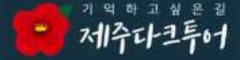
기억의 역사로서 다크투어 사례

2018. 12. 14.
제주다크투어 백가운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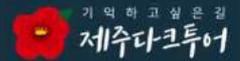
다크투어리즘

- 블랙스팟 투어리즘(black spot tourism), 타나투어리즘(thanatourism), 그리프 투어리즘(grief tourism)
- 대형 사고나 참사,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직접 방문하고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다시는 불행한 사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형태의 관광
-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전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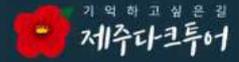
다크투어리즘의 유형화

- 참사의 장소
- 전쟁 지역
- 묘지나 무덤
- 대량 학살 장소
- 재난 지역 관광
- 식민지 역사
- 수용소, 기념관
- 최근 사망한 이를 추모, 존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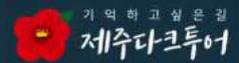
Top 10 Dark Tourism Sites by Popularity

1. 9.11 메모리얼 Ground Zero (뉴욕, 미국)
2. 알카트라즈 연방감옥 (샌프란시스코, 미국)
3. 아우슈비츠 수용소 (폴란드)
4. 진주만 애리조나 메모리얼 Pearl Harbor (하와이, 미국)
5. 폼페이 (이탈리아)
6. 베를린 장벽 (독일)
7. 알링턴 국립묘지 (워싱턴, 미국)
8. 파리 카타콤브 (프랑스)
9. 안나 프랑크의 집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10.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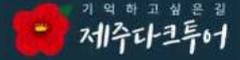
국내 다크투어 현장

유형	장소
전투전쟁	국립묘지,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전쟁기념관, 백마고지전적기념관 등
대량학살	광주 5.18 묘역, 제주 4.3 평화공원, 노근리평화공원 등
재난재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서울안전체험관 등
식민지 관련	민족시비공원,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백범김구기념관 등
안보(평화) 관련	강원 DMZ 박물관, 철원평화전망대, 통일전망대전시관 등
민주화 관련	마석 모란공원, 국립 4.19 묘지, 이한열 기념관, 박종철 기념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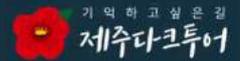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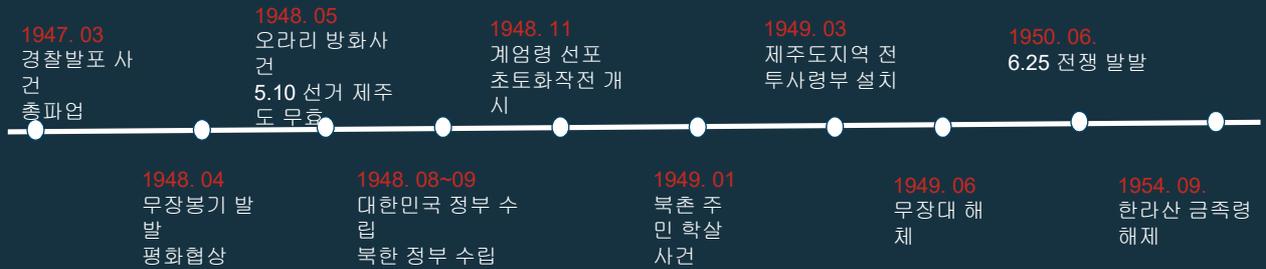
다크투어리즘, pros and cons

Pros	C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를 돌아켜볼 수 있는 교훈 여행 ○ 갈라진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키거나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 ○ 방문객들은 지역의 아픔을 공유, 확대 / 지역 주민들은 소통과 공감으로부터 치유의 계기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픈 역사의 상업적 이용 ○ 당시 악몽을 잊고 싶은 피해자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 ○ 국가 기관 주도로 개발되는 다크투어리즘 사이트



제주 4·3이란?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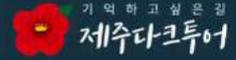


제주다크투어, 왜 만들었나요?

- 제주 사람 모두가 알고 있지만 70년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제주 4·3
- 여전히 부족한 대중홍보 사업과 국제연대 사업
- 조명받는 다크투어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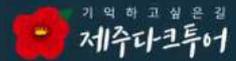






제주 4·3 평화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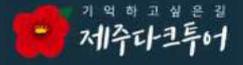
- 2018년 1월~11월 국내외 총 3,800여명 참가(제주다크투어 1,100명)
- 국내 외신 특파원 및 영자신문 기자 초청 프레스 투어 진행 (3월)
- 기행 끝난 후, 기행 후기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게재
-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참가자들이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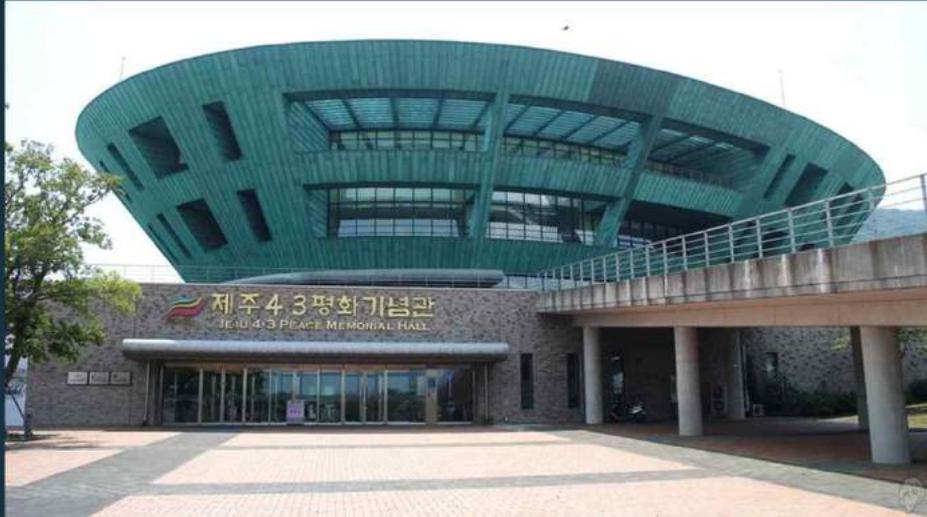
제주 4·3 평화기행 프로그램

1일차 : 4·3 평화공원 -> 선흘 도틀굴/목시물굴 -> 함덕 서우봉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 북촌 너븐송이 (유족 증언) -> 북촌 4.3길 걷기

2일차 : 첫알오름 -> 일제 강점기 고사포 진지 -> 동알오름 -> 송악산 진지동굴 -> 백조일손지지 -> 동광리 임문숙 가족 헛묘 / 잃어버린 마을 무등이왓 -> 진아영 할머니 삶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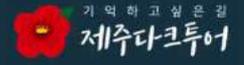


제주 4·3 평화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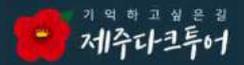


제주 4·3 평화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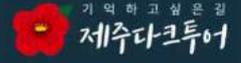


선흘 도틀굴 / 목시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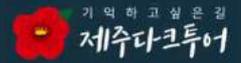


북촌 너븐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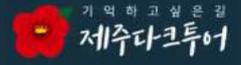


북촌 4.3길 걷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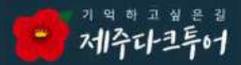


함덕 서우봉 일제강점기 진지동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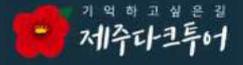
섯알오름 / 알뜨르 비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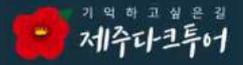
일제강점기 고사포진지



송악산 진지동굴



백조일손지지



잃어버린 마을 무등이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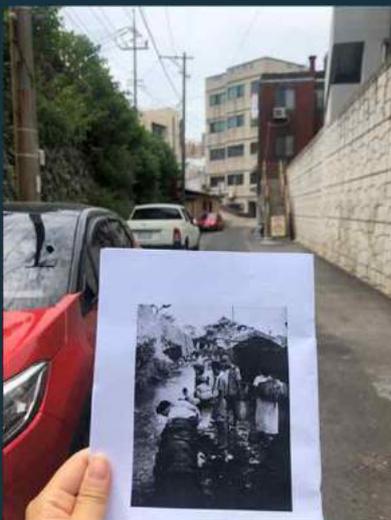
진아영 할머니 삶터



이덕구 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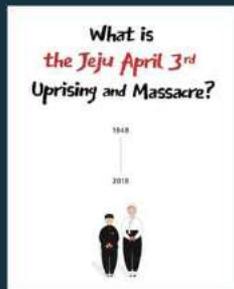
원도심 다크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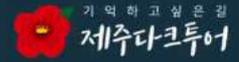




제주 4·3 홍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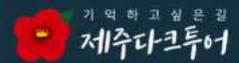
- 온라인 블로그, 페이스북 운영을 통해 제주다크투어 및 제주 4·3 홍보
- 4·3 관련 영문 소책자 및 지도 발행
- 4·3 70주년 부스 운영





제주 4·3 유적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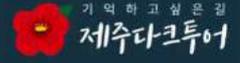
- 알려지지 않은 4·3 유적지 방문 및 기록
-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지도 등록 → 와흘굴, 진아영 할머니 삶터, 송령이골, 목시물굴 등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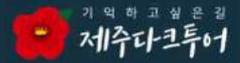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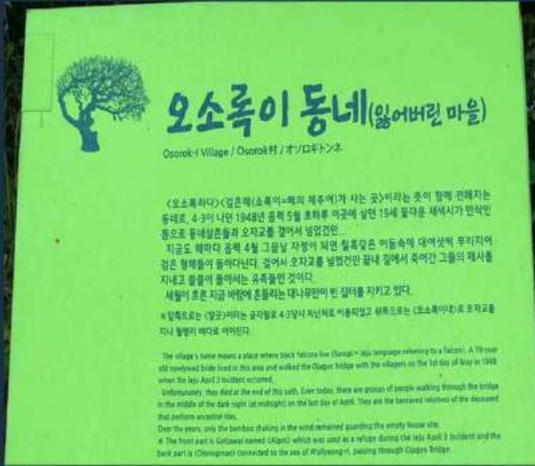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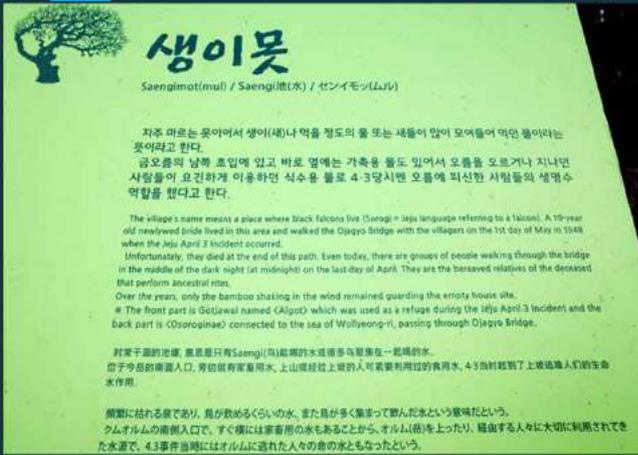
찾아가는 제주 4·3 강연

- 연 2회, 육지에서 4·3에 대한 강좌 기획 및 진행
- 2018년 상반기 : 서울 참여연대, 하반기 : 수원 다산인권센터





잘못된 유적지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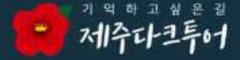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유적지 안내판

동광리 암문숙 헛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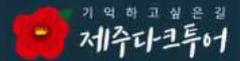
→ Fake Tombs?





제주다크투어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논의

- 유적지 지도 등록 및 자세한 설명
- 제주다크투어 프로그램의 다양화
- 4·3 해설사 풀 구축
- 4·3 유적지 보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제주다크투어

- 현재와 과거를 연결
- 육지 다크투어 프로그램과의 연결
- 동아시아 다크투어 프로그램과의 연결
- 제주다크투어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평화여행자



고맙습니다 :)

Session 4

- 주 제 : 사회혁신과 민주주의-시민참여를 중심으로
- 발제자 : 최수미(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센터장)

※ 발제자료 별도 배포

네트워크 포럼 3부

- 주 제 : 제주 4·3 사건 79주년 기념사업의
전국화 네트워크 사례 및 과제
- 발표자 : 박찬식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박찬식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12월 15일(토)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2017년 3월에 출범하면서,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청산과 치유,
4·3의 역사적 자리매김과 정명,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를

70주년의 목표로 결의했고,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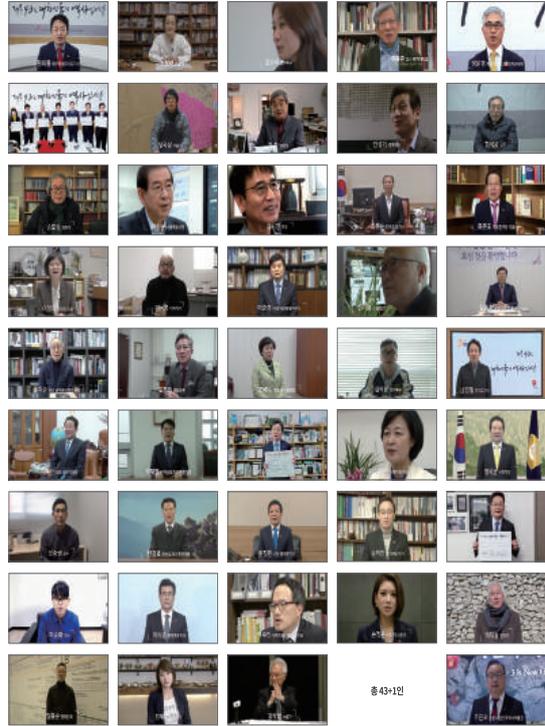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릴레이 캠페인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릴레이 캠페인은 제주4·3 70주년을 전국화하기 위해 17개 광역도시와 저명 인사들이 참여한 SNS 캠페인 프로그램이었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는 역사적 구호를 통해 제주4·3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국민들에게 온전히 자리잡지 못했음을 부각하는 한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역사적 자리매김을 위한 호소를 담았다.

지난 2월 5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총 44인이 참여했고, 그 참여 소식과 영상을 SNS와 뉴스를 통해 전국민에게 공유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참여 인사들의 캠페인 참여와 서명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소셜미디어와 뉴스 콘텐츠로 배포함으로써 4·3 해결의 책임을 각인시키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1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활동

- 2017. 04. 21.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내 특별법 개정 특위 구성
- 2017. 07. 25.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제주도의회)
- 2017. 09. 01.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국회)
- 2017. 10. 13. 행정안전부 차관 면담
- 2017. 10. 27.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과 간담회
- 2017. 12. 06. 법 개정 및 70주년 사업 공동협의 - 청와대, 행정안전부, 제주도, 범국민위 (12.21. 2차 공동협의)
- 2017. 12. 19.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발의 기자회견(국회)
- 2018. 03. 01. 제주4·3 완전해결을 위한 촉구대회(광화문광장)
- 2018. 03. 12. 여야 정당 지도부 및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면담 - 제주도지사, 유족회, 범국민위
- 2018. 04. 02. 완전한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 결의대회(제주시청)
- 2018. 08. 20.~21.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 행안위 의원 면담 - 유족회, 범국민위
- 2018. 09. 11. 국회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개정안 첫 심의, 계속심사로 분류, 11월 이후 본격 심의 예정
- 2018. 09. 13.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토론회(국회의원회관)
- 2018. 10. 09.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제주도민 결의대회 및 거리 행진(제주시청-관덕적)



4·3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 ▶ 법률의 명칭을《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 ▶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함
- ▶ 진상조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를 할 수 있는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함
- ▶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함
- ▶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평화재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2

제주4·3에 대한 미국과 국제연합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

2018년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017년 10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선포식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제주4·3에 대한 미국과 UN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서명운동에는 연인원 10만 9996명이 참여, 제주4·3을 향한 전 국민의 관심을 확인케 했다.

앞서 지난 4월 7일에는 '4·3 학살에 대해 미국은 사과하고 진실규명에 나서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면서 미 대사관 측에 '미국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하였고, 지난 10월 31일에는 전 국민이 참여한 '제주4·3 미국책임추구 10만인 서명운동' 서명지를 미국 대사관에 공식 전달하면서 유족, 일반시민 등 43인이 참가한 메시지 퍼포먼스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이를 통해 세 단체는 제주4·3 당시 민간인 대량 학살을 방조하거나 배후에 있었던 미군정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제주4·3 학살에 대한 책임 인정 및 사과, 피해회복 조치 요구를 미 대사관 측에 공식 전달, 시민사회는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환기시켰다.



3

제주4·3으로 만나는 평화·인권교육

2017년 10월부터 시작된 평화·인권 교육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50여 회,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에서 25회,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13회,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에서 10여 회 등 전국 100여 곳에서 진행되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0대부터 70대까지, 서울에서부터 서남쪽 안도와 동남쪽 해운대까지 전국에서 4·3의 진실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에서 미래세대인 20세 이하가 65%로 4·3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영향을 주었으며, 수강자의 84%가 4·3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호남권에서 3명, 영남권에서 4명, 제주도에서 9명, 수도권에서 9명 등 전국에서 참여한 30여 명의 4·3운동가와 역사학자가 강사로 참여했으며, 제주교육청도 전국의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지원했다.



교육 수강자들의 제기한 과제

강의 평가를 통해 수강자들은 4·3을 국민과 공유하는 전국화 사업을 가장 큰 과제로 제시하였고, 4·3의 역사적 평가를 통한 정명(正名), 국가 공권력에 희생된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정당한 청산을 위한 특별법 개정, 그리고 이승만 정부와 미국 등 가해자에게 인권유린과 학살의 책임을 묻는 일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4

(1, 2, 3, 4호 발간 / 5호 발간 예정)

4370 신문 발간

제주4.3 70주년을 맞아 특별 제작된 4370신문은 제주4.3과 70주년 사업을 전국적이고 대중적으로 알리는 소통과 홍보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기존 4.3 관련 정보와 자료를 답습하는데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한편 70주년에 걸맞은 여러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주력했다.

매회 기획 특집은 물론 연재물과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기존 흩어지고 찾아보기 힘들었던 4.3 관련 자료 및 정보들은 물론 70주년 한 해 제주 및 전국 단위 행사와 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취합, 정리하는 한편 권두언, 기획특집, 인터뷰 등을 통해 전국 독자들에게 제주4.3의 의미와 동시대성을 강조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5

다크 투어리즘

제주4.3 평화기행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제주4.3 유적을 돌아보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전쟁이나 학살 등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여행)의 유치와 지원, 관심 확대에 적극 앞장섰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풍광과 관광지뿐만 아니라 여겨졌던 제주4.3 유적지들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아픔의 상징에서 벗어나 올 한해 70주년을 계기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 교육의 장으로서 새롭게 인식되며 전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됐다.



6



오 명 감독



한재림 감독

양윤호 감독



방송광고

2018. 3. 25. ~ 4. 8.
KBS / MBC / SBS



광화문 분향소 / 정보관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의 피해자를 기억하자.”

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는 이러한 '기억'의 의미를 담아 4·3항쟁 희생자 약 1만 5천명 이름을 일일이 새겨 넣은 길이가 120m나 되는 흰 천을 두렀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기부 받은 흰 국화를 분향소 바닥에 깔아, 온 국민이 제주4·3항쟁의 추모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또 분향소 내부에는 제주도 전통 설화인 '설문대할망'(조소가 신건 우 제작)을 구현한 조소작품으로 재단을 설치했다. 재단 뒤로는 고인의 영정을 품에 안고 있는 제주4·3항쟁 희생자 유족들의 사진(사진가 김홍구 촬영)을 전시했다. 이러한 외양과 의미는 사건 당시 제주도 공동체 몰락과 치유를 표현하는 한편 희생자의 영혼을 지극, 여기에서 위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

4·3 정보관은 미 대사관의 정면 앞에 3개동 2층 규모의 컨테이너 조립구조로, 전면엔 외부 상영이 가능한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 광화문 광장을 찾은 관광객 과 일반 시민들에게 4·3의 의미와 이미지를 편안하게 전달했다. 특히 국화 천화와 4·3의 상징인 등백, 슬로건인 '4370' 등 미디어아트 등 총 5종의 LED 파사드 영상을 제작, 시각적으로 이름답고 상징적인 영상을 통해 제주와 4·3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5대 종단 추모의례

불교에서는 4월 3일 추모식 직후 100여 명의 조계종 스님들이 참여한 '4·3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영산제'를 진행하였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4·3당시 불교 피해 현장을 순례하고 학술토론회도 열었다.

개신교는 '4·3 역사정의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독교의 잘못을 사죄하였고 4·3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원불교는 4월 1일 4·3평화공원 초재를 시작으로 4월 7일 광화문 종재까지 매일 '4·3 원불교 천도제 그리고 상생치유 법회'를 봉헌했고, 봉헌금을 모아 유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천도교는 4월 6일 오후 2시 광화문 분향소 안에서 소박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성령출세기원 추모제를 열었다.

천주교는 명동성당에서 추념미사를 봉행했다. 미사 후에는 광화문 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치유와 화해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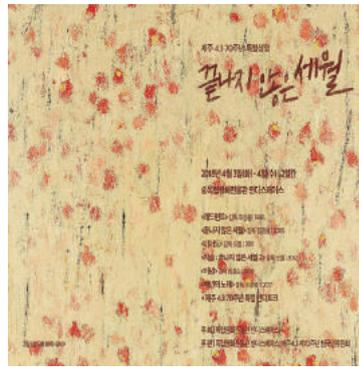
제주4.3 제70주년 특별상영: ‘끝나지 않은 세월’ 기획전

제주4.3의 기억을 영화로 소환하고 애도하는 제주 4.3 제70주년 특별상영: 끝나지 않은 세월 기획전이 지난 4월 3~4일 이틀간 서울 종로구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 제주4.3 70주년을 맞아 특별하게 마련된 이번 기획전은 제주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기억하고자 완성된 6편의 작품이 상영됐다.

조성봉 감독의 <레드헌트>를 비롯해 김경률 감독의 <끝나지 않은 세월>, 오열 감독의 <이어도>, <시슬: 끝나지 않은 세월2>, 임홍순 감독의 <비낀>, 이상목 감독의 <백년의 노래> 등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등 총 6편의 4.3 관련 영화들이 관객들과 만났다.

광화문에서 제주에 띄우는 노래 편지

서울에서 활동하는 민중가수들의 4·3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음반을 내고 분향소 무대에서 작은 음악회로 시민들을 만났다. 3일, 6일 두차례 열린 음악회에는 안석희, 임정득, 김영, 연영석, 손병휘, 류금신, 이빈, 이수진, 우리나라, 노래하는나들이 참가했다.



4·3과 시대를 연결하는 두 거장과의 만남

4·3문학의 두 거장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1978년 군부독재시절 <손이삼촌>으로 4·3을 세상 밖으로 꺼내어 고초를 당한 현기영 작가와 한반도가 조국이라며 ‘조선적’으로 일본에서 살아가며 <화산도>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4·3을 알린 김석범 작가가 나이와 시대, 그리고 국가를 초월하여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70년 전 제주에서 있었던 4·3의 본질과 과제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70년 끝나지 않는 노래” 광화문 국민문화제와 부대행사

2018년 4월 7일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촛불혁명의 성지인 광화문은 4·3의 물결로 넘쳤다.

이날 낮부터 광화문 북광장 무대 양편으로는 4·3항쟁을 비롯하여 여순항쟁, 노근리 사건 등 현대사 관련 단체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16연대 등 연대단체, 청소년과 학생들, 제주음식과 사투리 체험, 도사진, 기념품 만들기, 한창 제작 수공예 등 60여 개의 부스가 꾸며졌고, 4·3의 이야기를 담은 예술과 체험 난장도 진행되었다.

본무대에서는 12시부터 '흔디 부르께, 바당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제주와 서울의 인디밴드들이 만나 4·3을 노래하고 역사맞이 거리굿이 이어졌다.

저녁 6시 반부터 열린 4·3항쟁 70주년 광화문 국민문화제 《끝나지 않는 노래》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제주도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등이 참가하여 4·3의 해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 사우스카탈 밴드를 시작으로 마임이스트 조성진과 소리꾼 배일동, 정가 최나리의 공연과 김수열의 시낭송, 민중가수들로 구성된 4·3프로젝트 밴드의 노래, 극단 '경험과 상상'의 4·3단막극 공연이 이어졌고, 제주유족들로 구성된 4·3 평화합창단이 가수 최상돈과 함께 '애기동백꽃의 노래'를 불렀다. 이어 2부의 평화콘서트에는 안치환과 자유, 멜로망스에 이어 전인권 밴드가 추운 날씨를 녹이며 국민과 함께한 문화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방송콘텐츠

닷 페이스 / 7분 19초

쥐 픽처스 / 9분 37초

JTBC 차이나는 클라스

PD수첩



범국민위원회의 의뢰로 '닷페이스'가 제작한 모바일 다큐 '물지도 듣지도 않았던 제주의 4월'은 지난 4월 2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 4.3을 진중하고 의미 있게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범국민위원회의 의뢰로 '쥐픽처스'가 제작한 '제주4.3사건 한 방에 정리' 영상은 지난 4월 3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 제주4.3을 젊은 층에게 알리는데 기여했다.

JTBC 교양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는 지난 4월 11일 한기영 작가가 출연한 '4.3이 머우과?' 편을 방영, 4.3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은 지난 5월 8일, 4.3을 포함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문제를 고발한 '끝나지 않는 전쟁, 민간인 학살' 편을 방영해 호평을 받았다.

단편 <식계>

로그라인 한 아파트에 사는 여자와 할머니가 우연한 사고 끝에 서로를 알아보고, 여자의 아들은 같은 사투리를 쓰는 둘의 관계가 궁금해진다. 과연 둘은 어떤 사연을 공유하고 있는 걸까?

시놉시스 안 그래도 학원 시간이 늦었는데, 차 뒤로 누군가 버티고 있는 것 같다. 밖으로 나가보니, 제주 사투리를 쓰는 할머니가 엄마를 알아채고는 반가워한다. 엄마의 고향이 제주였다는 것도, 식계라는 단어도 아들은 낯설다. 할머니는 엄마에게 오늘이 식계(제사)라며 저녁에 들리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는 할머니와 엄마. 기다리다 지친 아들은 할머니 집 문을 열어 본다. 아들이 시야로 들어오는 흐느끼는 엄마와 여러 명의 사진이 올라 간 제사상.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엄마는 왜 이것을 감춰왔을까?

연출의도 제주는 외딴섬으로 여러 가지 독특한 전통이 살아있다. 현재는 아름다운 풍광과 여유 있는 삶의 속도로, 가고 싶고 살고 싶은 곳이지만 70년 전은 달랐다. 국가권력에 의해 3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무차별적으로 몰살당한 죽음의 섬이었고, 수많은 마을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끔찍한 상처와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또한 그 70년은 한국 근대사의 기형적이고 폭력적 이데올로기의 정철로 억울한 슬픔을 말도 할 수 없게, 끈질기게 망각하도록 요구됐던 시간이기도 했다. 그 기억을 잊고, 알리지 않으려는 2세대와 그래서 전혀 모르는 3세대, 그래도 묵묵히 그 식계(제사)를 지키고 지내왔던 1세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외면할 수도 잊을 수도 없는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자 했다. 온 마을이 같은 날 치러진다는 식계(제사)를 통해, 그리하여 역설적으로 제주4.3이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유교의 전통적 제사에 올리는 음식으로는 어색한 보리빵은 같은 날 온 마을이 제사를 지내다보니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관광특산물이 된 슬픈 메타포이다.)



제주4.3 보드게임 '꽃을 피워라'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최초 제안한 '꽃을 피워라'는 게임의 배경으로 관덕정, 정방폭포, 성산포 등 친숙한 4.3 유적과 진아영할머니 삶터, 한모살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을 차용, 동백꽃을 피우며 제주에서 사라진 200개의 마을과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내용의 보드게임이다. 게임을 접하는 아이들이 제주를 아픈 역사만이 아닌 화해와 치유의 섬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게임을 통해 쉽고 자연스럽게 4.3 역사를 이해하도록 기획됐다.



'제주4·3사건' 입체퍼즐

'제주4·3사건' 입체퍼즐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난이도 쉬운 61개 퍼즐을 완성하며 제주4.3에 관심을 갖도록 제작됐다. 지난 4월 광화문 정보관에서 체험공간이 마련됐던 이 입체퍼즐은 너른송이 4.3기념관, 다량수 오름, 백조일손묘역과 만병디미울, 제주4.3평화공원 등 4.3의 현장과 제주도를 직접 모형으로 조립하는 최초의 퍼즐이라 그 의미를 더 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3특별전 《제주4·3 이젠, 우리의 역사》

광화문 미국 대사관 옆에 자리잡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3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4·3 70주년 특별전이 열렸다. 전시는 제주4·3사건의 전개 과정에 따라 '프롤로그', '저기에 있는 봄'(1부), '흔들리는 섬'(2부), '행여 우리 여기 영영 머물지 몰라'(3부), '땅에 남은 흔적, 가슴에 남은 상처'(4부), '에필로그' 등으로 구성되었고, 제주 4·3 관련 국가기록물, 사료, 희생자 유품, 예술작품 등 약 200점이 공개되었다. 석달동안 이어진 4·3 특별전을 찾은 관람객은 13만여 명에 이른다.



4·3 특별도서전 (수원)

4·3 특별도서전은 한국지역도서전의 일환으로 지난 9월 6~10일 5일간 경기도 수원 화성행궁 일원에서 '4·3이 머우파?'란 제목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제주에서 처음 열린 한국지역도서전을 기념하고 제주4·3 70주년을 맞아 4·3을 더욱 알리기 위해 진행된 이번 도서전은 1978년 현기영 선생의 <순이삼촌> 등 4·3 관련 문학 작품들의 전시 및 사진전과 함께 4·3 관련 작가들의 각종 강연이 이어졌다.



제주4·3 제70주년 정명 학술대회

'제주4·3, 이름 찾기(正名)'란 주제로 마련된 제주4·3 제70주년 정명 학술대회는 4·3 정호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의 10월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1부 '제주4·3, 항쟁의 역사'는 연세대학교 사학과 김성보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연구실장이 주제 발표를,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과 김학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2부 '정명正名을 이야기하다'는 박찬식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주철희 역사학자와 박성인 노동자역사 한내 이사, 최범 문화평론가가 발표와 자유토론을 이어나갔다.



제주4·3 70주년展

'제주4·3 70주년展'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중앙광장 내 컨테이너 가설 전시관에서 진행됐다. 이 전시는 아픈 역사로 각인된 제주4·3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동시에 올 한 해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치러진 제주4·3 70주년의 발자취를 되짚을 수 있는 다채로운 정보들을 망라했다.

전시관 내에 마련된 영상패널, 설명패널, 정보패널, 그래픽패널 등 총 50여개의 각종 패널은 4·3 7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43'개의 4·3 관련 문화컨텐츠로 구성됐다. 4·3 특별법 개정과 미국책임추구 서명운동, 평화인권 교육,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릴레이캠페인 등 70주년 한 해 범국민위원회와 기념사업위원회가 벌인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4·3의 역사와 정보를 요약한 패널과 각종 영상물, 사진, 회화, 만평 등 그래픽 작업, 발행·발간된 인쇄물 등과 기념품 등이 총망라 됐다.



70주년 보고회 유족 행사/ 정가악회 공연

2018.10.31.(수) 17:00-21:00 세종문화회관 아미홀

개식	개회 및 내빈 소개	17:00 - 17:10
4370 보고회	제주4·3 70주년 영상보고	17:10 - 17:50
	4370을 넘어 : 성과와 향후 과제	
	총평 및 격려 인사	
휴식	유족 기록사진 이벤트	17:50 - 18:10
유족 행사	재경 4·3유족청년회 경과 영상보고	18:10 - 19:30
	유족청년회 활동계획	
	유족 인사 및 답소	
정가악회 초청공연		19:30 - 20:30
폐식	단체사진	20:30 - 20:40

"4·3 70년의 얼굴을 기록하다" 유족 기록사진 이벤트

70년 역사의 질곡을 간직한 유족의 모습을 기억하고 남겨 기록하는 사진 촬영 행사

재경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무렵, 수도권에 거주하는 23세대 청년 유족들이 4·3의 전국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3월부터 준비위를 출범, 70주년 광화문 행사를 지원하고, 재경청우회 순회활동을 펼치며 활동을 시작함.

4·3의 진실을 함께 공부하여 4·3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서로 보듬고 치유하며, 세대를 넘어 4·3의 교훈과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2018년 9월 10일 정식 발족하여 활동.

정가악회



4·3 70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음악회, 제주의 음악과 이야기로 4·3을 노래한다. 누워있는 백비에 새겨질 평화의 이름을 염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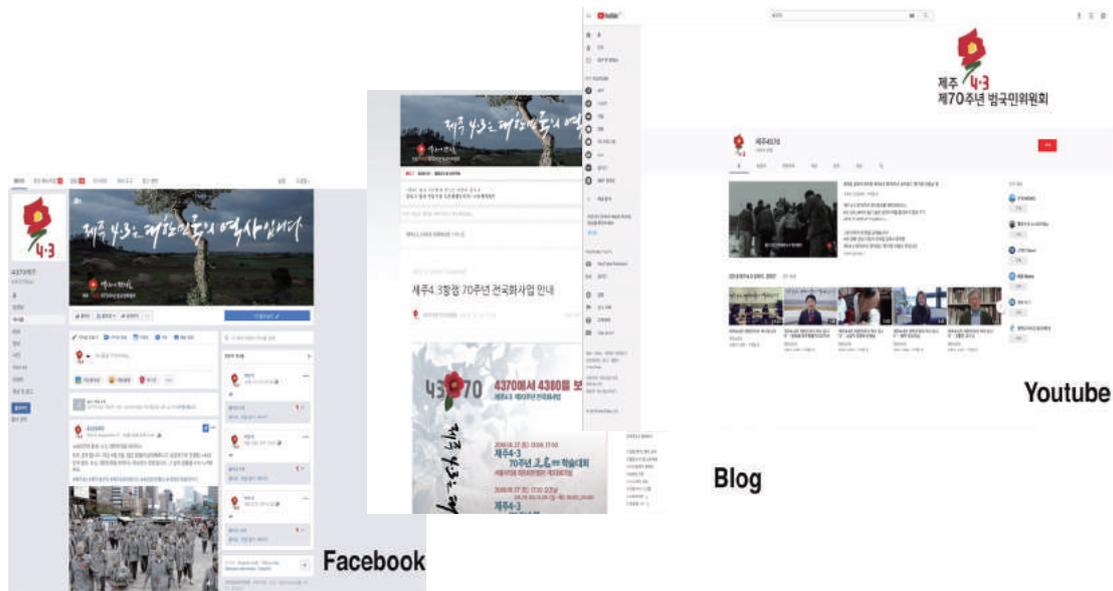
정가악회는 2000년에 창단한 전문국악단체이다. 가곡과 줄풍류, 판소리, 민요 등의 장르를 음악적 자산으로 하며, 국악의 서양화(westernization)가 아닌 모범적인 현대화(modernization)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통음악이 가진 깊이와 미학에 대한 해석에 있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현대의 음악적 사운드와 형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 대중성을 확보, 국악을 과거의 음악이 아닌 '지금', '여기'의 음악으로, 동시대와 호흡하는 음악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SNS운영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Facebook

Blog

Youtube

4.3 70주년 사업의 평가에 대해서...?

정치·대외 사업

조직 사업

문예·컨텐츠 사업

홍보사업

- MEMO -

- MEMO -

- MEMO -

- MEMO -